

환경기술 시장 석권을 위한 전략

이기홍

(동아일보 사회부기자)

미국 백악관의 살림살이가 계속 변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 가족이 사용하는 냉장고가 「골든 캐럿」이라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뀌었다. 낡은 조명시설도 전기를 덜쓰는 제품으로 교체됐고 스프링클러에도 물절약장치가 설치됐다. 페인트를 칠해놨거나 더러워져 제기능을 못했던 채광창도 청소 및 수선을 거쳐 대통령관저의 내부를 밝고 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백악관 초록화」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이루어진 것. 1백여명의 환경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이 1년간의 연구끝에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는 미국내 각 가정의 살림살이를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형으로 바꾸도록 선도하기위한 일종의 캠페인성 실천 계획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환경기술산업 부흥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도 할 수있다.

백악관 환경정책실의 캐더린 조 이부실장은 초록화계획이 진행될 경우 백악관 전체와 대통령관저의 유지에 드는 에너지를 약 30%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가족이 앞장서서 「그린 소비자」(환경보호상품을 이용하

는 소비자) 대열에 동참한 미국의 환경기술시장은 지금 세계시장석권을 목표로한 대대적 투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환경정책에 앞장서 「오존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엘튼고어미부통령은 전세계 환경기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녹색산업정책(Green Industrial Policy)의 제1단계안을 공포한 바 있다. 클린턴 정부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고어부통령과 대통령과 학자문역인 존 김슨이 주도해온 이 정책은 쉽게 말해 환경기술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키 위한 것.

△기관간의 녹색기술 프로그램 조정 △환경적합기술에 대한 정부승인 스탬프 제공 △지역간 정부간 상충되는 규제조화 △환경신기술의 산업화지원을 위한 대규모 투자 △미국 녹색기술 회사제품의 해외판촉 강화 등이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 계획안에 대해 의회와 재계는 적극 찬성하는 반응이다. 모든 산업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기술시장 석권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폐기물처리산업 등 전통적 오염물질 처리업체들은 이 계획이 오염예방기술을 추구하는 계획으

로 오염물질 사후처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주로해온 자신들의 사업기회를 잃게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반응도 없지 않다.

지난 92년 3천억달러정도의 시장을 형성한 환경기술시장은 97년에는 4천2백60억달러로 2천년을 넘어서면 그 몇배로 성장할 것으로 미백악관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환경기술산업시장이 큰 곳은 역시 미국으로 연간 1천3백40억달러가 환경기술업계의 매출로 기록되고 있다.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 환경산업에 대비한 미국내 시장 수성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수출에도 미정부는 군침을 삼키고 있다. 관리들은 미국의 환경기술수출규모가 몇년내에 1백억달러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미백악관은 금년말에 세계각국으로부터 수집된 갖가지 환경관련정보를 종합점검하기 위한 환경기술 특별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정부가 환경보호에 쏟는 예산도 해마다 늘어나 2000년에는 국내총생산의 3.1%에 해당하는 2천5백억달러를 환경보호에 지출할 전망이다. 그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68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폐기물처리회사인 Waste Management사는 지금까지 연평

균 24%의 고성장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90년 기준으로 매출액 60억 달러 순이익 7억9천만달러다. 이 회사는 요즘 매수 합병을 통해 종래의 폐기물처리사업 이외에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다.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내에서 가장 빨리 이익을 남길 사업으로 환경보호사업을 꼽는 사람이 많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곧 다가올 환경산업 붐을 앞두고 이에 대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탈황장치기술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은 「지구과학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산학연 공동연구를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지금 세계최고수준의 공해방지기술과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70년대 중동특수보다 더 큰 이익을 올려줄 세계환경비즈니스계

석권을 장담하고 있다. 유럽의 환경산업도 88년 6백50억달러에서 95년 8백30억달러 2천년엔 1천4백

**선진국의 제3세계
환경산업시장 진출은 대략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처음엔 오염을 수반하는
산업시설을 수출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어 「이런 제도를 써서
환경오염을 막으라」며
2단계로 자기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규제제도를 수출한다.
마지막으로 그 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산업기술 및 용역을
수출한다.**

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서도 환경기술산업시장의 질적 양적 팽창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독점하고자 노리고 있는 아시아지역 환경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 대만 홍콩 등이 앞으로 5년간 도시 및 산업폐기물 처리에 50억달러 정도를 지출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태국의 환경시장도 현재 각각 2억달러 수준에서 매년 25%정도 성장, 2천년까지는 15억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동아시아 환경시장의 80%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선진국의 제3세계 환경산업시장 진출은 대략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처음엔 오염을 수반하는 산업시설을 수출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어 「이런 제도를 써서 환경오염을 막으라」며 2단계로 자기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규제제도를 수출한다. 마지막으로 그 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산업기술 및 용역을 수출한다. 이런 방식의 수출이 세계경제의 불력화를 따라 미국은 중남미, 일본은 아시아, EC는 유럽시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황금알을 낳는 또하나의 거위」가 된 환경기술산업이라는 금광을 향해 뛰고 있다. 대통령부터 말단관리, 학계, 업계가 총동원된 총력전도 불사할 태세다. 과연 우리 정부, 학계, 환경산업계, 언론계는 다가올 이 치열한 환경산업경쟁에 올바르게 대비하고 있는지 총체적인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

